



학생부문 최우수작

연예인 자살 보도, 죽음은 없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2010. 4. 2 방송) 등을 보고

이다은

자살론의 고전 뒤르켐의 『자살론』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인 원인의 총합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 개인보다는 다른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자살의 발생 요인을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나 장애, 외부적인 갈등이라고 보았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리고 『자살론』에 대한 관점을 네 가지-이기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타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뒤르켐은 이러한 분류의 근거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힘을 들었고 이를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과 사회 결속의 두 가지 유형인 사회 통합과 사회 규제와 연관시켜 설명했다. 즉,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강하게 통합되어 사회규범의 규제에 따라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조절하는 사람이 자살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연예인의 자살에 대해 뒤르켐은 어떻게 보고, 어떤 부류에서 원인을 찾았을까? 한편 이를 연일 생중계하듯 보도하는 매스컴의 기능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연이은 연예인의 자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로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한다. 즉, 오늘 하루에도 전국에서 3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가 힘들어서,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을 뒤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빚에 시달리다가, 학업과 성적을 비관해서, 취업이 안 돼서 등 모두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자살이라고 본다. 그것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지구촌에는 스스로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경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요, 삶의 희망인 것이다. 부질없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일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까지 브라운관에서 웃는 얼굴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자살 소식은 주위에서 너무도 친근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 충격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최근 3년 동안 탤런트 안재환(36), 탤런트 최진실(40), 탤런트 장자연(29), 가수 이창용(38), 탤런트

우승연(26), 탤런트 최진영(39), 가장 근래 들어 탤런트 박용하(33)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한참 활동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가치관에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명한 기업의 한 CEO가 목숨을 끊더니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온통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고, 국민과 국가를 통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 슬픔 이전에 분노마저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 곁의 우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살로서 목숨을 마감한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도 있다. 더구나 인기를 누렸던 연예계 스타나 한류 스타의 자살은 그들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하던 청소년이나 팬들은 더욱 큰 상실감과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특종을 만난 것처럼 연일 뉴스마다 보도되는 자살 소식을 접하면 참 짜증이 난다. 아니 불쾌감이 든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TV나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자살 뉴스를 볼 때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아름다운 이야기나 감동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도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에 스타들을 사랑하던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자살 행위를 마치 미화하듯, 때로는 그들의 숨겨진 내밀한 이야기들을 캐내서 마치 특종을 잡기라도 한듯 연일 보도한다면 방송의 제 기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생을 마감하여 감동을 준 삶이라면 모를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자살을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에는 여전히 속보 경쟁, 선정성 강조, 죽음에

대한 미화 등 우울한 그림자가 남아 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KBS2 <연예가중계>, SBS <한밤의 TV연예>의 경쟁적 보도

지난 4월 2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최진영 씨의 자살 소식을 전체 방송분량의 40% 이상인 무려 네 꼭지나 내보냈다. ‘충격! 최진영 갑작스러운 사망’, ‘고(故) 최진영, 누나의 곁에서 영원히 잠들다’, ‘고 최진영 그가 떠난 후, 그리고’ 등의 기사를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나누어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우선 그의 죽음에 안타까웠고, 다음으로는 방송의 보도 태도에 안타까웠다. 장례식장에 참가한 연예인들의 모습과 최진실 씨와 최진영 씨 남매 사이의 정, 그의 부모님과의 인터뷰나 이야기, 장례식 절차와 그 후의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감성적으로 또는 여러 각도와 측면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며 과연 보도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KBS2 <연예가중계>, SBS <한밤의 TV연예>도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장에 누가 먼저 왔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은 알고 싶지 않는데 보여주려고 참으로 애쓰고 있었다. MC몽, 지성, 장근석, 엄정화, 홍진경, 신애, 정민 등 연예인 한 명 한 명이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슬픈 표정으로 답변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은 상가 예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또한 동료 연예인들의 눈물이 감성적으로 영상에 비춰졌는데, 이는 자살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 최진영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안치할 때 최진실 씨 묘 앞에서 “진실아, 엄마 좀 데려가라, 네 동생이 왔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말하는 것은 차마 듣기에 불편했다. 그리고 고인을 추모할 수야 있지만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방송이 제 기능을 외면한 채 자살한 사람에 대한 추모 영상을 내보내고, 삼우제나 그 후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제는 누나 곁으로’라는 방송 자막을 보내 죽은이가 안식을 얻어 편안해진 것처럼 만들고 죽음을 미화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연예인 자살 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연예인의 자살 보도를 두고 방송사마다 경쟁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닌 것 같다. 특종을 잡느라 방송사 간의 취재 열기가 대단하다.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 추측성 기사도 난무하기 마련이다. 죽음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벌써 각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사망 원인이나 심지어 자살한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도한다. 목을 매서 죽은 것에 대해 끈의 종류나 재질이나 굵기 등을 말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연예인의 죽음을 보고 충동적으로 자살하거나, 모방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까지 방송하여 많은 사람이 연예인의 자살을 수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한류 스타의 경우는 외국 팬들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방송을 보내거나 외국 팬들과 인터뷰한 내용, 외국 방송의 취재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방송해서 시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청자가 알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의 공감을 사서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로지 죽은 당사자만이 죽음의 진실을 안다. 일반 시청자나 언론은 그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연예인 자살에 대해 감성적인 영상으로 미화시켜 보도한다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점 때문에 자살의 영향력을 생각하여 자살과 관련된 뉴스는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다뤄야 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적 명사일수록 더욱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에 대한 보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인해 ‘베르테르 효과’에 따른 일반인의 ‘모방 자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정적 자살 보도가 모방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고,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및 자살방지에방협회 단체들은 2004년 ‘자살 관련 언론보도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자살 보도의 언어적 표현과 암시하는 태도가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살 사건의 특성도 모방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자살 방법의 구체적 묘사는 절대 금하고 자살의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자살 보도에 관해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피해야 하며 유명인사의 경우 정신보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언론은 또 다른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의 공기(公器)’라고도 한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언론은 이들의 공동 소유나 마찬가지로이기에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진실을 전하는 방식은 진지하고 차분해야 한다. 이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을 흥미 위주와 선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언론의 힘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사용하는 언론에게는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치면서: 시청자는 또 다른 아픔을 참고 있다

이 글을 정리하고 있을 때쯤 또 한 명의 유명 연예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류 스타로 인정받던 탤런트 박용하 씨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자살보도 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그 사회의 유명인사들보다도 대단하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수많은 청소년 팬들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가진 미담보다도 자살 같은 충격적인 뉴스가 몇십 배나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다른 사건보다도 연예인 자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내면을 파헤치는 것이 절대적 구조처럼 굳어져 있다. 그리고 연예인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단순히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드러난다. 자살한 연예인 가족의 후일담이나 특정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한 개인의 죽음으로 단정짓고 보도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살에 대한 시각은 수많은 시청자들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자살 보도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관의 발표나 수사가 이뤄진 다음 사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도해야 한다. 단순히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한다면

오히려 시청자들은 브라운관 앞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자살하는 사람의 뒤에 우리 모두의 책임도 조금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두에서 뒤르켐의 『자살론』을 인용한 것처럼 개인의 죽음은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이론도 있다. 언론은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보아야 한다. 단지 개인에게 있었던 일로 유명인에 대한 자살 보도를 지속한다면, 그 보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이며 시청자들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연예인의 죽음은 없고, 자살 보도만 있을 뿐이다.